
第124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1年2月20日(火) 午後2時

場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1年度消防防災本部所管業務報告
 2. 2001年度公務員教育院所管業務報告
 3. 2001年度非常企劃官所管業務報告
-

審査된案件

1. 2001年度消防防災本部所管業務報告 ... 1面
 2. 2001年度公務員教育院所管業務報告 ... 44面
 3. 2001年度非常企劃官所管業務報告 ... 49面
-

(14時 59分 開議)

○委員長 金光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 제12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消防防災本部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 消防防災本部所管과 公務員教育院所管 및 非常企劃官所管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균 따지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의회에 출석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통상 보면 하나의 통과의례적인 형식적인 자세를 가지고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거의 한 달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시간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임한다면 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업무추진사항을 철저하게 파헤칠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하고 또 시정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1. 2001年度消防防災本部所管業務報告

○委員長 金光洙; 의사일정 제1항 2001年度 消防防災本部 所管 業務報告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김광수

消防防災本部長은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洙洙; 消防防災本部長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光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오늘 처음으로 개최된 제1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 소방방재행정의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소방방재행정을 추진하는 데 용기와 힘을

모아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소방방재행정의 중점 추진 방향은 현재 정상 추진중인 서울종합방재센터 신설사업을 금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을 완료한 후에 7월부터는 재난시설물의 사전점검, 119재난신고, 인명구조·구급, 응급복구 지원체제를 일원화하여 신속 정확한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및 시민들이 가상의 재난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신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실있는 재난실습체험 교육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 현장책임제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재난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불과 행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시내 북한산, 도봉산 등 주요 산의 산악사고 다발지역 113개 장소에 산악사고 안내표지판을 금년 4월 이전에 설치하여 산불 및 등반객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주요 경기장내 소방시설 안전점검과 관람객 대피유도 훈련 등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설점검 및 도상훈련을 실시토록 한 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미리 점검 보완함으로써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겨울은 20년 만의 한파와 잦은 폭설 등으로 각종 재난 사고의 위험성이 산재하였으나

저희 본부에서는 5,283명의 소방공무원과 소방장비를 동원하여 재난위험 예방 시설물 사전점검과 결빙지역 긴급 안전조치로 다행히 대형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와 재해 없는 안전한 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소방방재 업무를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계속 지속되어 수도 서울의 방재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消防防災本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순서는 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장 순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消防行政課長 鄭柄虎, 防災企劃課長 鄭仁和, 防護課長 朴勇浩, 豫防課長 崔玄圭, 救助救急課長 羅承煥, 民防衛課長 張基研, 消防學校長 金洪仁, 消防學校 敎學課長 李聖珍, 消防學校 訓練課長 曺 서울綜合防災센터 創設企劃團長 李相基, 鍾路消防署長 李鉉誠, 中部消防署長 柳昭賢, 城東消防署長 李柱潤, 龍山消防署長 朴貞玩, 東大門消防署長 劉明洙, 中浪消防署長 徐相泰, 永登浦消防署長 梁承鍾, 城北消防署長 具本寬, 道峰消防署長 權寧大, 蘆原消防署長 金昭秀, 西部消防署長 朴魯泰, 麻浦消防署長 趙雲相, 江南消防署長 黃仁英, 瑞草消防署長 朴寅基, 江西消防署長 朴懾振, 江東消防署長 金忠洙, 九老消防署長 咸相甲, 冠岳消防署長 黃順鐵, 松坡消防署長 金德鎭, 陽川消防署長 金國來, 銅雀消防署長 李相九)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消防防災本部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洙;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본부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鄭圭鎭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圭鎭 委員; 鄭圭鎭委員입니다.

소방방재본부는, 우리 각 지역의 소방서는, 특히 119구조대는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가슴에 정말 가까이 와있는 신뢰 받는 믿음의 단체로 크게 부상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많은 찬사와 격려를, 또 치하를 많은 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지난 연말에 우리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의결한 예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통과한 그 예산이 우리 상임위 활동에 모든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통과한 예산에 비해서 예결위에 가서는 정반대로, 우리 뜻과 우리 위원들 의지와는 정반대로 통과한 예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고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줍니다.

왜 소방방재본부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모든 내용을 무시하고 그 외의 어떤 로비스트를 고용했는지 본부장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담당과장을 시켰는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도 않은 내용들을 예결위에 가서 다 통과시켰어요.

본부장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총액이 얼마고 예결위에서 더 증액해서 통과한 내역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 좋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 받았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통과시켜 주겠다 그 전제조건이 있었던 말이에요. 선 조건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 이렇게 이렇게 했고 행정자치부에는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 금액이 되었을 때 우리도 조건부로 승인해 준다 하는 조건부 의결내용까지 달았었는데 그 외에 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위원장한테나 각계 위원들한테 하등 아무 얘기도 없이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안이면 B·C안까지 예결위에 가서 다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로비를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상임위 총액, 예결위 총액 증감된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내용부터 설명을 받고 추가적인 내용을 묻겠습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鄭圭鎭委員께서 저희들 소방방재본부 금년도 예산에서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은 4,072만이었었는데 그것이 뭐가 하면 의용소방대 소방활동비가 1,250만원,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비가 1,917만원,

그 다음 서울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비가 905만원 이렇게 해서 4,072만원을 증액하고 삭감은 강남소방서 재건축비용 37억 6,942만 6,000원, 잠원파출소 재건축 8억 1,935만 7,000원 포함해서 45억 8,878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요. 증액이 된 것은 강남소방서 재건축과 잠원파출소 재건축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이, 다시 이것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이것이 54억 5,178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비용은 鄭圭鎭委員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건부로 국고보조에 일부라도 반영이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인정한 78억은 전액 다 예산에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된 내용은 25억 9,172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에 25억, 그 다음에 119종합방재시스템 구축, 신설파출소 5억 9,000만원, 또 의용소방대 소방활동비 1,250만원,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비 1,117만원, 그 다음에 서울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비 905만원 이렇게 해서 25억 9,172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실제 증액은 28억 6,006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관서장들이나 저나 로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때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 다만 잠원파출소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이 지나가는 바람에 건물이 거의 도괴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또 재난위험시설 C급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또 그 당시 李松竹議員님께서 그 지역 소방서에 방문을 여러 번 해서 잠원파출소 주변에 사시는지 해서 내용을 잘 아시고 예결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오히려 제가 이것을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못 드렸느냐 해서 엄청나게 李松竹議員
님한테 혼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소방서 재건축사항은 지금 건물을 세 번 증축
하는 바람에 건물이 상당히 위험스럽고 이래서 그 지역에 있
는 시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로비를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주장을 하시고 해서, 또
저희들도 그러한 취지를 앞서 李松竹議員님과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랬고요.

그 다음 의용소방대 소방활동비라든지 전국 소방기술경연
대회 출전비, 서울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비 이런 것은 삭감
을 시키고 그 중에 119종합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신설
과출소 5억 9,000만원하고 소방용수시설 일부를 삭감한 것을
대신해서 이것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도 상임위원회에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로
비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런 사
항을 실제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적극적으로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들도 필요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
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圭鎭 委員; 잠원과출소 문제는 李松竹議員이 그랬고, 그
러면 강남소방서 개축비는 누가 로비를 했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安秉昭議員입니다.

○鄭圭鎭 委員; 그러면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은?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시민안전체험관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사실 화성 씨랜드 사
건이라든지 인천의 호프집.....

○鄭圭鎭 委員; 그 배경은 알아요, 그것의 필요성도 알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상당히 논란은 있었습니다.

○鄭圭鎭 委員;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책사업으로서 국가에서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대도시 서울 천백만이 사는 도시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선진국의 예도 그렇고 해서 그 필요성은 알지만 아직은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12월에 심의할 때는 아직은 불요불급하다, 정부의 모든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짜여지고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렇다면 국회에서 필요한 부서에 협조하고 있다, 행자부에도 건의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 조건부로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까 얘기하는 安秉昭 議員이나 李松竹 議員 같은 경우에 자기 지역사업으로 인해서 예결에 들어가서 예결위에서 건의해서 됐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는 그러면 누가 얘기를 했나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鄭圭鎭 委員; 얘기도 안 했는데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줬단 말이에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국회에 갔다온 내용도, 국회 예결위원 이상수의원 등이렇게 여러 분들을 만나서 국회에 이미 넘어간 상태가 되어서 내년도는.....

○鄭圭鎭 委員; 결과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렇습니다.

○鄭圭鎭 委員; 안 됐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고를 해 주어야죠.

거기에서 배정이 될 경우에는, 전부 국비로 배정이 될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필요한 예산을 해 주겠다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무시하고 우리 위

원들 무시하는 처사가......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鄭圭鎭 委員; 그래서 모양을 갖추어 주었어야 할 것 아니야?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鄭圭鎭 委員;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따지 못 했다, 행자부에 건의해도 안 됐다, 국회에서 담당의원들한테도 그것이 먹혀들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꼭 필요하다 하는 어떤 절대성을 필연성을 우리 위원들한테 강조해서 추가로라도 예결위에서 꼭 따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본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갔었어요.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있었어요. 몇몇 위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작 행자위에 있는 나는 가만 있는데 다른 쪽의 위원들이 더 들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로비라고 하는, 미국에는 로비스트도 있는데 로비가 가서 밥 사고 술 사고 해서 로비가 아니잖아요. 전화로도 부탁할 수 있고 지연, 학연, 혈연으로 부탁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해.

그 가능의 모양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하지 않고 다른 측 위원들이......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鄭圭鎭 委員; 오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여하시다 보니까 白懿宗委員님하고 崔忠敏委員님한테는 누누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내년도는 반드시 국고보조를 따 가지고 오겠노라고.....

○鄭圭鎭 委員; 白懿宗委員님이 우리 상임위 위원장입니까? 崔忠敏委員이 위원장이예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아니, 예결위원회에 세 분이 행사위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鄭圭鎭 委員; 예결위에 그런 것을 얘기할 때는 담당위원들한테 각계 각층으로 얘기하지 않고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장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한테 지침을 내리도록,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지만 이렇게 계급장을 달고 있는 부서가 소방방재본부뿐이 없는데 상하계통을 무시하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鄭圭鎭 委員;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어요? 제일 윗사람이 그렇게 하면, 밑에 사람이 그런 것을 보고 배워야 될 것 아니예요?

왜 계통을 무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만 각계 각층으로 부탁을 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말이야.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죄송합니다. 예결위원회에 행사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鄭圭鎭 委員; 금년 5월에도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이런 모양을 만약 한다면, 소방방재본부는 진짜 그런 면에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나 다 룰이 있고 계통이 있고 상하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런 질서가 없는 행위를

앞으로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알겠습니다.

○鄭圭鎭 委員; 119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거는 기대는 굉장히 지대합니다.

또 전산정보시스템이 처음 발족되면서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 같은 것도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 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었죠, 지난번에?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렇습니다.

○鄭圭鎭 委員; 그런데 열이라는 잘못이 있었는데 셋, 넷이라고 하는 징벌을 가하다 보니까 양정규정에도 없는, 양정규정을 무시한 행위의 처벌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잡음이 감사관실에서도 많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혹독하게 질책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얘기도 듣고 알고 계시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알고 있습니다.

○鄭圭鎭 委員; 그런데 그 후에 구속된 사람들이 있었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그렇습니다.

○鄭圭鎭 委員;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직무태만인지 직무유기인지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하고 있다가 또 감사관실에서 확인을 못 하고 있다가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지금 서울지검 특수3부에서, 원래는 김영철이라는 전임자입니다. 이미 면직이 됐던 직원이 수배단계에 있다가 검거가 되는 바람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직원 2명이 구속이 되고, 또 이와 관계해서 기술평가과정에서 정보화기획단에서 파견 나온 전산사무관 한 사람과 또 심

의위원 권영은이라고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는 직원 2명이 구속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련자를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관계서류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의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소내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번 저희들이 방문도 했고, 그 외에 혹시 관련자들이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신분상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신분상의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鄭圭鎭 委員; 지금 신분상의 조치를 못 하고 있나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네, 그래서 그것은 검찰에서 공소내용이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띄우고 직접 담당 검사도 만나고 했는데, 1심 공판이 확정판결이 될 때 그때 해 주겠다 해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圭鎭 委員; 다음 상임위 때는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알겠습니다.

○鄭圭鎭 委員; 그리고 高建 市長이 특히 강조하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서울행정, 또 반부패지수가 어떻다고 흔히 시정질문 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많은 시민들이 보는 눈은 아직도 복마전에서 허덕이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소방방재본부에서 큰 사건이 벌어짐으로 해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것만큼은 사실일 거예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같은 공무원들한테도, 또 의원들한테도

테도 서울시는 아직도 부조리의 온상이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으로 보는 눈초리를 제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가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만큼 그 예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있어 본부장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유형별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노력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사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圭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洙; 鄭圭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林浩植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林浩植 委員; 시민안전체험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설명하신 대로 건립에 대한 취지는 아주 좋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좀 지연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요청했고, 그러나 조건부로 해서 통과는 시켜주었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맞습니다.

○林浩植 委員; 그리고 예결위에 넘어가서도 많은 예결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아직 이르다,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예결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결 계수 조정하는 단계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 어려운 것을 통과시킨 여러

분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사과의 말씀도 본부장님께서 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해라 이렇게 우리가 조건부를 달았는데 사실상 국고보조는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행자부에는 60억을 올렸었는데.....

○林浩植 委員; 그러니까 국고보조 요청을 이미 했다가 불가능하다 해서 반영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또 다시 얘기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액 시비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지금 179억 2,7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이번에 78억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6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차질 없이 공사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문제 없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공고는 지난 12월 20일 일단 나갔습니다.

지금 2월 9일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시설 변경심의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3월 29일 기본설계안이 등록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14개 대형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적격자 선정을 조달청에서 하고, 이 모든 공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저희들이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말경에는 공사계약이 조달청에서 돼서

착공이 6월초에는 되겠습니다.

○林浩植 委員; 이것이 공원내에다 건립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환경파괴의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린공원내 시설기준을 보면 시설률이 기존에 40인데 현재 어린이대공원이 37.44입니다.

그런데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나 건폐율이나 또 녹지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도 현재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수자원 위원들 몇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공원 안에 있는 현재 시설을 원칙적으로 고수를 하면서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지금 유아·청소년 안전사고가 사실 우리 나라에서 사고건수 전체의 20세 이하 청소년들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동경이 세 군데, 전국에 1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국에 한 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지금 씻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浩植 委員; 아무튼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林浩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李健相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健相 委員; 李健相委員입니다.

아까 鄭圭鎭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소방방재본부의 예산을 심의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심사숙고 심의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렸는데 예결위원회 가서 모두가 살아났다 말이에요.

나는 살려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부득이 예산을 살릴 경우라면 아까 로비 얘기도 나오고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상식으로 살리는 과정까지 우리 본부장이 본부의 임원들 회의라도 소집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위원들 전원에게 서로 임원들이 위원 몇 사람씩이라도 맡아서 부득이 이것을 살려야 되겠으니 협조해 주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일을 했으면 오늘의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왜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꼼꼼하게, 본부장, 중책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 있어서 됩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야죠. 노력을 해야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죄송합니다. 세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뜻을 전해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健相 委員;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착안하세요. 노력해 주기 당부합니다.

또 한 가지 인사권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소방공무원 대상

으로 시·도간에 소방서간 인사교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가족 및 3년 연속 근무자로서, 보도가 나온 일이 있어요. 이것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2월말 내지 3월에 발령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내용 아시는 대로 본부장 답변 좀 해주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에서 매년 연초가 되면 시...도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만 하는데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소방위가 1명, 나머지는 비간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전국에 교류를 하겠다고 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수평계급별로, 수평이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타 시·도와 교류할 때 행자부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健相 委員; 이번 신청숫자 안 나와 있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있습니다.

○李健相 委員; 몇 명이나 돼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85명입니다.

○李健相 委員; 그렇게 희망자가 적어요, 시·도 간에?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서울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간부들이 많고요.

○李健相 委員; 다음에 항공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반기에 있었던 일인데 申珠暎 본부장님 적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항공대 방문 현장답사를 계획을 세워서 갔다 온 일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7~8명, 또 소방본부의 간부와 이하 현장에 출두한 직원들이 20명 이상

이나 돼요.

그러면 본부의 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현장을 나갔으니까 점심 한 끼를 주려면 주든지 그런 부담이 어려우면 자체에서 우리 상위의 카드를 가지고 먹든지 했을 텐데, 내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얘기를 하려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방문을 하려면 제대로 책임자가 책임지고 말뼉 없게 해 주어야 됩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사업소 단위의 현장방문이라든지 현장확인이 계속 때에는 반드시 본부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健相 委員; 이것 사회경험이 없는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소위 시의원을 현장방문 시킨다 해서 항공대 하부직원한테 떠넘겨서 그러한 불상사가, 몇 사람의 희생자가 나게끔 말이지,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죄송합니다.

○李健相 委員; 나부터도 그런 밥이면 안 먹었어요, 나도 그 당시에 참석을 했지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아주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健相 委員;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알겠습니다.

○李健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洙; 李健相委員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李宗弼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宗弼 委員; 李宗弼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응급구조사 현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응급구조사는 현재 저희들이 총 1,05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호사가 37명이고 응급구조사가 810명, 간호조무사가 13명, 전문교육과정 이수자가 194명으로 1,054명을 현재 저희가 구급자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54명을 현재 구급대원으로 배치해서 109개 구급대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李宗弼 委員; 혹시 공공시설물에도 응급사가 있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공공시설물이라면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宗弼 委員; 대형건물, 어느 정도 연건평 얼마 이상.....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없습니다.

○李宗弼 委員; 주로 119차량 그쪽에 해당됩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네, 구급차량 그렇습니다.

○李宗弼 委員; 그리고 사실 지금 119구급차가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장비가 어느 상태입니까? 장비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니면 현재 장비를 어떻게 보십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지금 저희들 장비는 현재 서울시 규칙에도 69종에 104점을 대마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9개 대에 1만 1,336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모품도 있고, 또 고정설비도 있고 그래서.....

○李宗弼 委員; 응급처치 장비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응급처치 장비는 거의 94%는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李宗弼 委員; 제가 다니면서 출동하는 차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절대 부족이라고 대답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심전도 기록장치 이런 것이 아직 676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李宗弼 委員; 사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엄청난데 장비 부족이나 뒤따르는 보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279점 부족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3억 5,000만원 확보를 해서 189점 정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되어서 95%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으로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李宗弼 委員; 하여튼 제일 시급한 쪽이니까 그런 쪽에 현대화를 빨리 해 주십시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알겠습니다.

○李宗弼 委員; 그리고 차량보유에 대해서 알아보더니 서부에 조명차가 91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3km를 뛰었어요. 이것은 뭘 뜻합니까? 주행거리가 3km예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출동횟수에 따라서 그것이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李宗弼 委員; 그러면 이것을 출동을 많이 하는 쪽으로 전용하든지 해야죠, 거기에 놔두지 말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조명차는 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위치에서 계속.....

○李宗弼 委員;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서부 관내가 거의 대부분이 1km 이내에, 사실 거기는 대형건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李宗弼 委員; 10년 쓴 차가 3km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宗弼 委員; 별도 자료도 괜찮으니까 주세요. 자료 구비하는데 참 힘드니까, 이것 인력낭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장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 소방서의 장비가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런 것은 없고요.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각 서에 있는 매년 노후장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노후장비를 받으면 각 서에 있는 담당주무팀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절대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신규차를 하지 않고,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신설 소방관서 이런 곳에는 아무래도 신장비가 많이 배치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오래된 소방관서는 노후차량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이번에도 82대인가 교체를 금년도에 합니다.

○李宗弼 委員; 혹시 서장님들의 힘에 따라서 장비가 좋은 것이 가지 않나 하는 그런 기우입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李宗弼 委員; 하여튼 유념하시고 골고루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알겠습니다.

○李宗弼 委員; 그리고 119종합방재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것을 조달청에서 해 주는 거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그렇습니다.

○李宗弼 委員; 그런데 이것 너무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장비가 118억 9,100만원인데 그런데 현재 3년 동안 변경할 수 없는 계약을 했습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총괄계약을.....

○李宗弼 委員; 그것이 3년이 4월 15일에 끝나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원래는 99년도에.....

○李宗弼 委員; 아니, 4월에 다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자가 지금 현재 3월까지 나간 것이 55억 2,300만원이 나갔습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그것은 리스를 해서요.

○李宗弼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때 한참 비쌀 때 3년 소급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답답한 얘기입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원래 전산통신장비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李宗弼 委員; 내구연한이 그렇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리스를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아주 끝까지 책임추궁을 할 것입니다.

올 4월에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엄청난 국고손실을 받습니다. 얼마나 급한 장비인지 모르지만.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계속사업 기간 동안에 예산을 안배해서 매년도마다 장비를 직접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宗弼 委員; 참 안타까운 일이 이것 도대체 110억짜리 갚으면서, 거의 이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자 줄 것 얼마 안 남았는데 118억에 65억의 이자가 나갑니다.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어차피 조달청에서 해 주었다고 그래도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계약 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렇게 급한 장비가 필요하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금리시대가 되어서 틀려졌습니다만 리스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李宗弼 委員; 이것 너무 국고 손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洙;李宗弼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방대원에 대한 복지·사기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소방행정과에서 합니다.

○委員長 金光洙; 소방방재본부장은 부하들 복지 사기에 대해

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아닙니다. 이번에 사기진작책으로 원래 진압수당을 진압요원들한테만 8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운전요원들도 당초 4만원에서 4만원을 더 받도록 행자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진압대원이나 운전요원이나 똑같이 8만원을 받도록 조치했구요.

단지, 내근에 있는 진압계 직원들이나 수리요원들 그런 직원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委員長 金光洙;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방재본부장께서는 부하 복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업무보고 어느 면을 보더라도 소방대원들의 복지 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1면도 없어요.

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한 페이지라도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분장사무에 대원들 사기 복지 문제는 소방행정과 소관업무라고 얘기했는데 소방행정과 소관업무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 교육, 기획, 감찰 및 예산편성, 그 외에 뭐가 있어요? 복지부분이 그렇게 미미한 부분입니까, 전체 소방대원들에 대해서?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앞으로는 그것 빠지지 않도록 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光洙;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평소에 부하들의 복지에 관심이 없으니까 업무보고에 한 줄도 없는 것 아니요? 관심이 있으면 왜 그 부분이 한 줄도 없어요.

소방방재본부 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5,283명입니다.

○委員長 金光洙; 5,283명이면 엄청난 대부대 병력인데 엄청난 조직이고 이 엄청난 인원이 사기가 충천해야 화재진압도 잘 하고 근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업무 보고 현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본부장, 본부장은 부하를 위해서 사비를 써본 적이 있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지난해에도 순직자하고 부상자들 공상자들이 42명이 되어서 일일이 제가 업무추진비를.....

○委員長 金光洙; 업무추진비 말고 사비를 단 돈 1,000원이 라도 써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부하를 위해서.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예를 들어봐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직원들이 상을 당했다든지 집안에 애...경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 비용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 사비로도 하고, 또 다쳤을 경우에도 비용이 적을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지난번 강서소방서 화재 진압시 순직했던 소방대원에 대해서 방재본부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우를 했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委員長 金光洙;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셨냐 말이에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부의금을 전체 동료들이 한 4,000여 만원을 걷어서 가족한테 전해 주었고, 또 저희들은 사실 순직에 대한 요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순직이라든가 할 때는 자체적으로 돈을 주머니에서 내서 간부들은 본부장은 10만원...20만원, 또 과장들 서장급들은 10만원, 비간부들은 조금씩 내서 지난번에도 한 4,000만원을 걸어서 직접 가족한테 전해 준 적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조금도 피해가 안 가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장례의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중부소방서 순직자도 그렇고 지난번 강서소방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본부장은 평소에 의식 자체가 부하들에 대한 사기나 복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상임위 업무보고에도 엄청난 양을 보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항을 누락한 거예요.

또 이것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행정과장 자체도 그러한 동료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이 모든 장비를 누가 조정합니까? 인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 아니야?

화재진압 누가 해요? 장비가 합니까? 어떡하면 5,000여 명 소방대원들의 사기와 복지를 진작시켜서 이 인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인 소방방재 업무를 100% 달성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지.

그래서 당신이 평소에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시설비 25억을 삭감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다른 예산을 증액하는 데 혈안이 됐던 거예요.

소방용수시설이 뭘니까? 이것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정말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장비 투입이 곤란한 이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소방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 이 시설 아니에요?

25억이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800개 분이야. 800개면 몇 개 동 분량입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소방용수시설 예산을 삭감할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또.....

○委員長 金光洙; 이것도 삭감이 안 되도록 강력하게 로비를 해야지.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건의도 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것이 빠져서 저희들도.....

○委員長 金光洙;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방대책은 도외시하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것에 대한 비상소화장치는 그대로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이 양반아, 당장 25억원이 삭감된 것 아니야?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것은 소방용수시설인데요.....

○委員長 金光洙; 소방용수시설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소화전, 저수조.....

○委員長 金光洙;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소화전입니다.

○委員長 金光洙; 어디에 설치하는 소화전이에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지대라든지 밀집지역, 또.....

○委員長 金光洙;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을 못 하는 지역 아니

에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런 데는 비상소화장치라 해서 90개소는 100%.....

○委員長 金光洙; 그런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그런데 왜 이 예산 삭감을 방치했어?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고지대 비상소화장치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그러면 이 25억 삭감이 무슨 예산 삭감이에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것은 일반 소화전입니다.

저희들이 고지대라든지 저소득층에서 사용하는 것은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화재현장에 물을 사용하는 소화전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800개 정도 상당한 것이 깎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언급을 하고 했는데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光洙; 그러면 아까 예산증액 문제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처 절차를 몰라서 그랬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消防防災本部長이 몇 급 공무원입니까?

예를 들어 消防防災本部長이 서에 지시를 했을 때 그러한 지시내용이 왜곡되게 시행했을 때 그러면 소방서장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본부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런 뜻은 아니고요. 행자위원장님

몇 분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격론을 통해서 확정된 예산안에 중대한 변화가 올 때는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또는 간사, 모든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없을 때는 위원장이나 간사들한테 최소한도 양해를 구하고 사실 이만저만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됐는데 예결위에서 공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또 불요불급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고급 공무원으로서 기본상식 아니에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고급 공무원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하 복지나 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내가 앞으로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는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순수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전체 서울시민들의 우리 소방방재본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겠어요. 이상입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앞으로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崔忠敏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崔忠敏 委員; 崔忠敏委員입니다.

32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정말 기상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통의 혼잡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소방방재본부에서도 119구조대나 또 비상근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눈 치우는데 고생하셨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저희들은 179개소의 고지대라든가 또 지하철 주변 지역을 담당하고, 또 관서 주변 110개소에서 의소대, 우리 소방관들 비상체제로 돌입해서 현장에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崔忠敏 委員; 계속 고생하시고요.

제가 의문 나는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소방공무원법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소방공무원신분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崔忠敏 委員;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 훈련중 사망했을 때 3년치 월급, 3개월치 조위금, 장례비 한 30만원 포함, 그 다음에 소방공제회나 순직 유족을 위한 130만원, 이것이 전부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그렇습니다.

○崔忠敏 委員; 그런데 군인이나 경찰 또 국가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경호실 등 해서 이런 분들은 보훈혜택을 받고 있어요, 사망시.

그런데 소방공무원들도 화재 진압시에 순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부상으로 해서 평생에 불구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보훈의 대상에 포함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消防防災本部長, 그래서 소방공무원들도 군인과 경찰과 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국회에 표류중입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것이 아니고 지금 군인하고 경찰 공무원은 공무수행을 하면 무조건 순직으로 받아들여서 국군 묘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 같은 경우에는 국립묘지령이라는 제3조에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중에 화재라든지 구조...구급 활동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심의를 국무의결을 부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승인이 되면.....

○崔忠敏 委員; 군인이나 경찰은 공무수행중에 순직할 때는 순직이고 소방공무원은 순직을 했을 경우 그의 타당성 객관성 여부를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 그 말입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그래서 화재 구조...구급 수행중에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崔忠敏 委員; 경찰은 실제로 훈련중에도 해당이 되는데 소방공무원은 훈련중에 해당이 안 된다, 보훈혜택을 볼 수 없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회와 국방부에 관계법령을 행자부에 개정 추진중에 있는데 잘 협의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崔忠敏 委員; 이것은 당시 75년도에 소방직이 경찰직에서 분리됐습니다. 분리하면서 화재진압중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이 늘자 소방공무원법 업무수행중 사상자 보훈대상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훈련중 부상, 사망자는 이나마 제외시켰어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훈련중에 부상하거나 사망자는 넣어야 되는데, 훈련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현재 보훈처 입장을 보니까 교정보도직이라는 것은 교도소 관리직입니다. 교정보도직 공무원이나 마약단속 공무원 또는 산불방지 산림직 공무원도 보훈대상이 됩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알고 있습니다.

○崔忠敏 委員; 산불 방지하는 공무원까지도 보훈에 포함시키는데 소방공무원들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혜택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화재구조...구급업무 수행중에만, 다른 직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경찰과 군인만 공무수행중에 순직한 경우는 다 인정을 해 주고요, 그 나머지는 소방하고 똑같습니다.

○崔忠敏 委員; 원래 소방직이 경찰청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그렇습니다.

○崔忠敏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은 경찰과 동일한 업무선상과 동일한 업종으로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빨리 하루속히 소방공무원들도 보훈 혜택을 공무수행 외에 군인과 경찰과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묘지령에 삽입을 할 수 없어서 현재 행정자치부의 관계법령을 소방법에 삽입을 해서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협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崔忠敏 委員; 그러니까 국가가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면 1조 목적에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

죽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실제로 생활안정, 즉 말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하고 화재진압 때 죽고 또는 훈련중에 죽을 경우에, 훈련중에 다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있습니다. 훈련중에 사고가 지금까지 15명이 있습니다.

○崔忠敏 委員; 이 사람들 중에 불구가 되신 분도 있고, 어떻게 신체적 결함이나 크게 다치신 분 계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한두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만.....

○崔忠敏 委員; 다쳐서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옛날에 제가 영등포에 방호계장으로 있을 당시에 화재현장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공상자 순직자에 대해서 보훈혜택을 받지 못 할 때입니다.

○崔忠敏 委員; 그러니까 보훈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기본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훈련을 받다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됩니까?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군인이 평상시에 훈련을 받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립니다. 전쟁이라는 그것 때문에 군인을 3년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군인과 경찰처럼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훈련중에도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忠敏 委員;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열관계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의문나는 점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1급은 1,200m 달리기 5분 1초에 해야 되고 2급은 5분 36초, 3급은 6분 27초, 4급은 7분 27초 이렇게 했는데 1급·2급·3급·4급 이렇게 나이순으로 해서 기록을 정한 거예요, 아니면 특정 룰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1급 같은 경우는 팔굽혀 펴기가 39회 이상, 2급은 30회 이상, 3급은 19회 이상, 4급은 15회 이상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군인들도 이렇게 하고 경찰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1급·2급·3급·4급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군인과 경찰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忠敏 委員; 등급을 나누는 기본적인 것은 급수입니까, 계급입니까, 나이순입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나이순과 계급과 이것이 같이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崔忠敏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체력검증 결과 미달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재검을 받도록 합니다.

○崔忠敏 委員; 계속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직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崔忠敏 委員; 체력검증 결과 총괄을 보니까 전부 우리 소방

공무원들은 체력이 튼튼한 것 같아. 불합격자가 단 두 명만 있기 때문에, 사실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체력증진에.....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체력이 나쁘면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崔忠敏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약 2,500만대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해서 119신고로 걸린 사실을 뉴스에서도 봤고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어떻게 전자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렇지 않아도 지난 목요일에 시장님한테 시장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저희들이 1년에 119 오접이 전체 오인신고 건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000번일 경우, 9786이라든지 9가 들어가 있는 휴대폰, 특히 011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휴대폰은 해당이 안 되고 011 SK텔레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崔忠敏 委員; 017, 018은 안 된다는 거예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것은 괜찮습니다. 011휴대폰만 해당이 되는데 011도 9000번으로 가는 번호가 거의 대부분이 오접이 일어나서, 경찰은 또 112인데 거기도 011휴대폰에서 오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崔忠敏 委員; 기지국이 다르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이 0을 돌릴 경우.....

○崔忠敏 委員; 0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원래 01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0을 안 돌리고 11하고 9000번으로 나갈 때 119가 그대로 저희 소방상황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인가 하면 금년도에 오점이 219만건, 한 55% 정도가 오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K텔레콤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112이기 때문에 2자로 나가는데 오점이 일어나서 0을 안 누르고 뒷번호가 2로 나가는 번호는 112로 막바로 떨어집니다. 저희들은 011인데 0을 안 돌리고 11하고 9000번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崔忠敏 委員; 본부장님 말씀은 이것을 이동통신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군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SK텔레콤 측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답답하니까, 저희들이 당장에 오점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인력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崔忠敏 委員; 그 다음에 우리 많은 동료...선배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이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님, 각급 서장님들

께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에게 신속 정확한 보고를 해서 본부장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시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간부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손색 없도록 더욱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업무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白懿宗委員님 질의하십시오.

○白懿宗 委員; 白懿宗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崔忠敏 幹事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사상자나 불구가 된 사람이 15명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나온 집계가 15명입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이것은 서울소방본부 72년도 소방본부 창설 이래 지금까지 훈련으로 인한 것이 15명입니다.

○白懿宗 委員; 그 15명이 사망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공상자입니다, 순직자는 없고요.

○白懿宗 委員; 공상자가 15명밖에 안 됩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지금까지 총 순직자가 11명이 있었고요, 공상이 152명이 발생했습니다.

○白懿宗 委員; 이 중에 생활할 수 없는 불구자도 있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지금 현재 공상자 중에는 불구자는 없고, 단지 3급·4급 이렇게 장애급수는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만 불구자가 된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白懿宗 委員; 이분은 직장을 다 떠났겠네요?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으로서 있지는 못 하죠? 장애가 그런 정도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그 정도는 아닙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 없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그 당시의 순직자라든지 공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액을 지불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고요.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직업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소방공제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白懿宗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011 이동통신 전화 때문에 아까 50% 이상이 잘못되어 상황실로 가서 업무에 굉장한 차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네.

○白懿宗 委員; 그러면 잘못된 상황이 50%나 되는데 본부장께서는 그런 것을 자체개발을 해서 그런 잘못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네, 그렇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언제부터 잘못된 것을 알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장난전화는 방재센터를 창설함으로써 인해서.....

○白懿宗 委員; 본부장님,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장난전화를 떠나서 이동통신 전화로 하여금 50% 정도가 업무에 지장

을 준다 이런 얘기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렇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이동통신 전화가 우리 나라에 보급된 지가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白懿宗 委員; 적어도 십 몇 년은 되겠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런데 그 중에서 9000국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9000국은 2년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000국만 해당이 되지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011 중에서도 9000번으로 시작되는 것.

○白懿宗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언제부터냐고 했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2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2년 동안은 업무차질을 그렇게 50% 이상 받아 왔네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런데 011휴대폰이 급증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기하급수적으로 오점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白懿宗 委員; 그러니까 발생이 2년 전부터 받아 왔다 이런 얘기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렇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런데 언제부터 자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사실은 이번에 방재센터 창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오점과 장난전화 이런 내용을 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白懿宗 委員; 날짜를 물었잖아요, 언제부터 이런 노력을 하셨냐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이번부터 그렇습니다.

○白懿宗 委員; 이번이면 금년부터 그랬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작년 6월에 이것이 한국통신에 공문을 보내서 이 관계에.....

○白懿宗 委員; 작년 6월입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그렇습니다.

○白懿宗 委員; 6월에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있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것 하나 사본 좀 주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별도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리고 본위원의 지역에 관한 문제 하나 묻겠습니다.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파출소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49쪽에 있네요. 보셨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白懿宗 委員; 도화파출소 이전은 마포구 염리동 174-3번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부지 매입은 됐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그렇습니다.

○白懿宗 委員; 계약이 다 끝났어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관할서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白懿宗 委員; 좋습니다. 부지 계약이 끝났습니까?

○麻浦消防署長 趙雲相 그 소유주가 미국에 있는 분이기 때

문에 중간의 관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계약이 아직 안 됐죠?

○麻浦消防署長 趙雲相 네.

○白懿宗 委員; 안 됐는데 이렇게 지명 번지까지 확실하게 옮긴다고 하는 확정으로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안 되고 이것이 잘못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본부장이 대답해 주세요.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표기를 했습니다.

○白懿宗 委員; 변동은 없으리라고 100% 확신합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白懿宗 委員; 왜냐 하면 남의 땅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고를 위원들한테 100% 확정된 것으로 했기에 다음에 이것 잘못 됐을 경우에는 본부장이 뭐라고 답변을 해서 위원들한테 사과를 해야 할 것인지 나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소방과출소 부지 이것을 매각할 것이죠?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그렇습니다.

○白懿宗 委員; 매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市 재산관리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白懿宗 委員; 본부장 소관이 아닙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洗洙; 네, 그렇습니다.

○白懿宗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消防防災本部長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부장은 가칭 소방요원 복지 및 사기증진대책 방안 보고 이런 가제목으로 별도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崔忠敏委員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다 그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추진방향, 중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고.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것, 또 진행해야 될 사항 이런 과정에서 본부장 차원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시장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 이런 과정에서 법률개정을 요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근본적으로 현재 소방요원들의 사기 및 복지면에서 여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 이런 비교 분석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현재 또 이를 위해서 진행중인 것은 어떻게 진행중에 있다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완전한 소방요원들의 복지 및 사기증진 대책을 위한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소방요원들의 현재 사기는 본부장이 파악하고 있는 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기분이 좋아야 잘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왜 기분이 나쁘냐, 그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金洸洙;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그리고 지휘관은 지휘와 통솔을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휘만 있고 통솔이 없다면가 통솔만 있고 지휘가 없다면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본인의 진로에도 상당한 지장과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름지기 지휘관이라는 것은 지휘와 통솔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부서의 기강을 유지하고 아울러 사기를 유지해서 조직이 바라는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방방재본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2001年度公務員教育院所管業務報告

(16時 51分)

○委員長 金光洙;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1年度 公務員教育院所管 業務報告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金光洙 委員長, 韓春子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韓春子;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은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안녕하십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光洙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韓春子 간사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사년 새해를 맞

이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지식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면서 낡고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안을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교육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가면서 원장 이하 전 직원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육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새천년을 열어갈 신지식 공무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한결같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저희 교육원의 간부, 과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教育企劃課長 張文學, 教育運營課長 金在貞)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公務員教育院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저희 교육원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韓春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公務員教育院長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健相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健相 委員; 市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이 유인물을 미리 보내줘서 본위원이 다 읽어보고 습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을 위시해서 간부 여러분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그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春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鄭圭鎭委員님.

○鄭圭鎭 委員; 鄭圭鎭委員입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에, 또 국가의 百年大計도 어디나 교육이 제일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서울시정을 담당할 고급공무원들의 기초 소양교육부터 고급 전문화교육, 사이버교육까지를 통틀어서 전체적인 수강계획을 세울 텐데 아무튼 교육의 중대성은 하시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중요한 점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교육의 중요성은 잘 아시겠지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 내용도 보니까 교육이 끝나고 나서 만족도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의 설문내용이 나온 것을 보니까 훌륭한 교육이 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당사자들 교관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지금 우리 鄭圭鎭委員님께서 교육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은 저도 교육원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도 좋은 사람이 와야 되지만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가 훌륭한 교수가 교육을 맡아야 그 교육이 질과 내용면에서 훌륭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교수요원 능력개발 프로그램 연중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를 31%나 되는 서울시의 교수들을 강의를 하는 교수기법에 대해서 외래 전문교수를 모셔다가 이틀씩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강의기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방법이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외래강사보다는 만족도가 내부강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앞으로 내부강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鄭圭鎭 委員;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갖는 어떤 사명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교육을 하는 강의의 수준, 교관의 수준,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그 만족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옛말에 가장이 멍청하면 3대를 고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듯이 훌륭한 강사진들을 확보하고 전년도에 초빙했던 강사의 질 이런 것을 점검해서 그런 사람들을 시간 때우기 식의, 강의수당 주는 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의하는 강사들의 수준에 대해서 간혹 얘기하는 것을 두어번 들은 적이 있는데 강사의 수준이 그 집단을 교육하고 그 집단을 발전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매체가 되는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원장님의 배려,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감사합니다.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올리면 작년도에 강사로 선정해서 교육한 분들이 599명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설문조사해서 20% 이상 불만족되는 분들이 92명이 나왔습니다. 92명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시험출제를 어렵게 냈기 때문에 자기 점수가 나쁘니까 설문조사에서 나쁘게 한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하는 그런 교수들한테도 설문조사에서 점수를 나쁘게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52명은 재선정을 했고 40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재선정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외래교수지만 강의기법이나 강의내용이 부족한 그런 40명에 대해서 금년에 강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강사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圭鎭 委員;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春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1年度非常企劃官所管業務報告

(17時 25分)

○委員長代理 韓春子; 의사일정 제3항 2001年度 非常企劃官所管 業務報告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非常企劃官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非常企劃官 朴官燮; 非常企劃官 朴官燮입니다.

존경하는 韓春子 委員長님, 그리고 行政自治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2001년 새해 제1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 업무는 전시 등 비상시 정부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비상대비력을 보완 발전시키고 동원체제를 확립하는 업무입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자상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非常企劃官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韓春子 幹事, 金光洙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光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鄭圭鎭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圭鎭 委員; 鄭圭鎭委員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많이 작년 1년 동안에 급진전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50년 만에 우리가 남북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감동의 드라마도 보았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 질문사항으로는 지금 각 동에 동대가 있죠?

○非常企劃官 朴官燮; 네.

○鄭圭鎭 委員; 동대의 대장들 계급은 관계가 없나요? 계급은 장교라든가, 장교가 없는 지역은 하사관이 하고, 하사관이 없는 지역은 병들도 하나요?

○非常企劃官 朴官燮;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지역에서 수방사 예하에 동대장들은 상당히 지휘체제가 높습니다. 대위, 소령 이상 급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鄭圭鎭 委員; 각 동에 있는 동대장들도?

○非常企劃官 朴官燮; 그렇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은 직장예비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수방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대는 지휘체제가 확실히 잘 되어 있습니다.

○鄭圭鎭 委員; 각 동에 있는 동대는 우리가 지휘하지 않아요?

○非常企劃官 朴官燮; 저희들이 하지 않고 수방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圭鎭 委員; 각 동에는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그 동대장들은 방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나요?

○非常企劃官 朴官燮; 그렇습니다. 구성요원이 되겠습니다.

○鄭圭鎭 委員; 참석을 하는데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위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동대장으로서 지역 방위를 위한 준비사항이라든가 곧 을지훈련이 있을 것이다, 화랑훈련이 있을 것이다, 며칠간 한다, 거기에 주민들이 해야 할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보고가 없이 참석만 해서 그냥

식사집에 식사를 하러 가는 하나의 친교의 마당으로만 생각 하는 그런 동대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방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수방사에서 지휘 서신을 내려보내서 각 지역 동대장들은 지역방위협의회에 꼭 참석을 해서 방위협의회에, 방위협의회라면 그 지역의 유지들 이란 말입니다.

○非常企劃官 朴官燮; 그렇습니다.

○鄭圭鎭 委員; 그 지역의 시 지역의 많은 직능단체장들로 구성된 방위협의회에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 주는 자리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지휘서신으로 해서 수방사에 얘기를 해서 수방사에서 는 각 동대에, 각 구, 각 동까지 그런 서신이 내려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아까 첫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非常企劃官 朴官燮; 鄭圭鎭委員님께서서는 지난해 6·15 남북 정상회담으로 해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이 강구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비상대비업무 분야는 지난해 그런 문제를 배려해서 6·25 50주년 행사를 실시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했냐면 남북정상이 합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지한다 이러한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6·25행사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안보를 지지하는 향군으로서 이런 행사를 해서 큰 호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연장선에서 지난해 을지연습도 남북이 서로 화해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야외에서 하는 훈련을 제외하고 도상으로, 또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을 심층 토의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많은 을지연습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금년에도 도상훈련 위주로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할 것은 결론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북쪽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러한 연장선에서 우리의 태세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안전보장회의에서도 우리의 훈련과 그 다음에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은 강도 있게 해라, 그리고 태세는 그대로 갖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저희 市는 99년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91년 걸프전을 통해서 화생방 대비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市도 그것을 받아들이자 이러한 노력을 해서 2000년도에 1차 같이 용역을 했고 이번에도 마지막에 얘기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해서 나름대로 계속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6·15 남북정상회담이 하시는 정신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받들되, 그러나 우리의 준비태세는 허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자세로 알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鄭圭鎭 委員; 주적의 개념까지를 운운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나 안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촌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국토방위, 우리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실상황 훈련해야 될 것을 도상훈련으로 대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하는 그런 안보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적의 개념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절대 앞서가서는 안 된다 하는 개념을, 상황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非常企劃官 朴官燮; 저희들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鄭圭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동대 문제가 나왔는데 지난 연말에 수방사에 가서 市長님하고 위문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市長님께서 동대장들이 고생하는데 대화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4월에 하는 재향군인의 날에는 동대장들을 전부 모아서 市長님이 치사를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오찬도 하시도록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鄭圭鎭委員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우리가 포함해서 설명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조그마한 동대부터 참여해서 특히 재향군인회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니까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동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의 안보역군으로서 좋은 참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鄭圭鎭委員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서신도 그런 측면에서 수방사에 내리고 이런 조치를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鄭圭鎭 委員;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금년에 있는 예비군 행사에 494명이 참석하는 것은 이 중에 예비군하고 동대장이 포함된 것입니까?

○非常企劃官 朴官燮; 네, 와서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圭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鄭圭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白懿宗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白懿宗 委員; 白懿宗委員입니다.

기획관계서 보고하시면서 을지훈련을 할 때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서 을지훈련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을지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안보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배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배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非常企劃官 朴官燮; 지난해 이 문제가 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대략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비상기획위원회가 군사훈련과 동원훈련을 연계해서 하되, 이것을 어떤 현안 위주로 많이 설정해서 토의하는 위주로 하되 그 당시에는 6·15 남북정상의 화해 분위기도 배려해서 밖에서 많이 노출되거나 그러한 군사적인 문제들을.....

○白懿宗 委員; 기획관님, 쉽게 답변해 주세요.

배려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햇볕정책을 쓰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위를 거스리지 않게 하면서 을지훈련을 한다는 이런 뜻인가요?

○非常企劃官 朴官燮; 너무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白懿宗 委員; 배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非常企劃官 朴官燮; 네.

○白懿宗 委員; 그리고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고서 6쪽에 보면 LAN·WAN 이용, 메시지 접속...발송이라고 그랬는데 LAN, WAN이 무슨 뜻입니까?

○非常企劃官 朴官燮;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서. 그것은 우리가 시청하고 구청하고 전산망을 깔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LAN이라는 것은 시청이고 WAN이라는 것은 구청입니까?

○非常企劃官 朴官燮; 네, 그렇습니다.

○白懿宗 委員; 이것이 약자입니까?

○非常企劃官 朴官燮; Local Area Network, 지역네트워크이고 WAN, Wide Area Network.

○白懿宗 委員; 이런 것은 가능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약자로 하지 말고, 아니면 밑에 설명을 부연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궁금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북쪽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LAN, WAN은 시청과 구청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非常企劃官 朴官燮; 네.

○白懿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洙; 白懿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李健相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健相 委員; 李健相委員입니다.

예비군을 장악하는 동 단위로 동대장이 있죠?

○非常企劃官 朴官燮; 네, 그렇습니다.

○李健相 委員; 저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거주하는 하왕십리동에, 동마다 유지들로 구성된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위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동대 행사에

있어서 물질적인 지원도 해 주고 때로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예비사단에 가서 사격연습도 하고 또 연말에는 위문도 하고 이렇게 방위협의회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와 방위협의회와는 그 동네에 밀접한 유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해 주고.

한 가지는 百聞이 不如一見이라고 우리 시의원들 임시회를 벗어나서 시기를 적당히 선정해서 전방의 격전지를 한번 현지 답사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非常企劃官 朴官燮; 그 말씀은 지난해에도 李健相委員님께서 말씀하셨고, 지지난해 우리가 저쪽 철원지역을 한 것이 상당히 뜻이 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예산 조치를 건의드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健相 委員; 금년에 비상기획관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막연한 거예요?

○非常企劃官 朴官燮; 저희들이 을지연습 기간중에 모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健相 委員; 한번 전방 격전지에 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洙; 李健相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계서는 평소 철저한 근무자세로 서울시 비상기획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욱 분발하셔서 비록 적은 인원과 어려운 여건이지만 비상기획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쪽에 보면 비밀 소유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가 아니고 보유현황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非常企劃官 朴官燮; 네,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洙;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56分 散會)

○出席委員

金光洙 崔忠敏 韓春子 金周喆

李健相 李成浩 李載震 林浩植

鄭圭鎭 白懿宗

○專門委員

金泰鎬

○出席公務員

消防防災本部

本部長 金 洸 洙

麻浦消防署長 趙雲相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非常企劃官 朴官燮